88%→44% '국민 분열의 30개월'… 신뢰회복 급선무

〈지지율〉

집권 반환점 文정권 현주소

〈上〉 '평등·공정·정의' 바람 앞 촛불

지지율 역대 최대폭으로 수직 하락
'조국 인사단행' 부정평가 기폭제로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도 분열 불씨

검찰개혁 vs 조국 사퇴로 '국민분열'
연말 추가개각 등으로 쇄신 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로 대통령직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한지 30개월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는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주는 정부가 된 것일까. 아님 전 정권과 비슷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을까. 메트로신문은 집권 반환점을 맞이한 현 정부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0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직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발언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했고,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가치를 현 정권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의 집권 초기 지지율은 고공상승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최고치인 84%(2017년 6월 1주차)를 찍었다.

하지만 집권 반환점을 맞이한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이 수직 하락했다. 집권 초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나,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자 역대 정부보다 높은 '부정평가'를 직면했단 얘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3일 실시한 '역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임기시작 후 첫 조사인 84%(2017년 6월 1주차)에서 44%(2019년 10월 5주차)로 하락했다. 2년 반 사이에 40%p나 지지율이 하락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직하락한 이유로는 '인사(人事)'가 꼽힌다. 문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강조한 '평등·공정·정의'와 궤를 달리한 인사를 요직에 발탁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17번째 임명 강행 논란이 있다.

우선 조 전 장관 사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 전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지명하자마자 조 전 장관 가족들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고구마줄기처럼 연이어 터졌다. 조 전 장관의 해명 역시 수사당국의 수사로 인해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9일 장관직에 임명된지 35일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해야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월20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부정평가 53%)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인 41.1%보다 적은 수치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고위공직자 17명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반환점을 맞이할 동안 조 전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유은혜 교육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조명래 환경부 장관·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총 17명이다. 이는 전 정권의 임명 강행 횟수(10번)보다 많다. 야권과의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단 얘기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직하락한 또 다른 이유로는 '국민분열 메시지'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조 전 장관 사퇴로 여론이 분열(조 전 장관 사퇴 또는 검찰개혁)되자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행위"라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조 장관 거취에 대한 여론의 반응 때문이다. 지난 9월 말부터 조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진영의 서초동 촛불집회(주최측 추산 약 200만명)가, 지난 3일에는 광화문 조 장관 규탄 집회(주최측 추산 약 300만명)가 활발하게 열린 바다. 그래선지 야권에서는 직격탄을 날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죄하라"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본인의 취임사가 '바람 앞 촛불'이 되자, 추가 개각 및 청와대 개편으로 국정운영 쇄신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 대통령과 여권은 조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감을 표하지 않았나"라고 운을 뗐다. 이어 "따라서 여권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연말 또는 연초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추가 개각 또는 청와대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계에서 나오는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설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투자에 AI 심고, 수수료 혁신… 열매 맺는 '고객 만족'

증권가의 디지털혁신

❷ NH투자증권

주식수수료 '평생무료' 선도
수익 대신 모바일 강화 집중

'나무' 어플에 알고리즘 마켓
주문 간편, 수익률 비교 용이
코딩·빅데이터 인력 양성도

지난 1월 11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일산 소재 NH인재원에서 개최된 '2019년 목표달성 결의대회'에서 올해 경영계획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의 디지털 혁신은 고객만족에서 출발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취임식에서부터 디지털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혁신본부가 만들어졌고, 모바일 증권앱 '나무'에 알고리즘 마켓을 만들어 고객 수익 실현에 성과를 내고 있다.

◆'모바일 올인' 通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의 투자환경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모바일로 변하고 있다고 판단, 국내 증권사 중 가장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바일 고객을 모으기 시작했다. 모바일 증권앱 나무 신규가입 시 주식 수수료 '평생무료' 이벤트를 통해서다.

NH투자증권이 수수료 '평생무료'를 들고 나왔을 때 업계에서는 "생태계를 죽이는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증권사 수익의 상당부분은 주식 매매 수수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이 수익을 포기하고, 모바일 강화에 집중했다.

결론적으로 NH투자증권의 전략은 통했다. 지난 2017년 8월 이벤트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53만개 신규계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다른 증권사도 서둘러 '100년 무료', '30년 무료' 등 사실상 평생무료 정책을 뒤따랐다.

모바일 투자 시장에 앞서간 NH투자증권의 나무는 사용자환경(UX)을 꾸준히 개선하며 모바일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개설을 하고,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각종 이체나 상품가입, 주식 매매를 가능하게 했다.

◆알고리즘 투자, 수익률 35% 성과

NH투자증권 자산관리(WM) 디지털 본부는 모바일 앱 나무에 인공지능(AI)을 심었다. 자동화된 알고리즘 기반의 주식투자 서비스 '알고리즘 마켓'이다.

알고리즘 마켓은 10개의 상품 라인업을 갖췄다. 추전 종목에 대한 간편 주문이 가능하고, 투자자 계좌의 운용 수익률과 추천 전략의 수익률을 비교해 투자성과 점검도 할 수 있다.

그 중 전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를 분석해 매일 1개 종목을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 '올댓 AI 리포트' 서비스는 단연 히트작이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35.13%에 달한다. 코스피 수익률을 31.02%포인트 아웃퍼폼하는 수준이다.

NH투자증권 WM 디지털(Digital)플랫폼부 RA사업추진팀 전태희 팀장은 "올댓 AI 리포트 서비스는 많은 상품 중 디지털 팀이 과거 성과가 좋고 투자 전략이 새로운 상품을 선별해낸 것"이라면서 "최대 5개 종목만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고, 투자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전략 등으로 안정성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혁신은 고객 투자, 고객의 토탈 자산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된다"면서 "고객이 투자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최상의 자산관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고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전사 차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점과 본사 기획부서 인력들을 대상으로 코딩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내 희망자 대상으로 빅데이터 이해와 코딩언어 활용법, 당사 실데이터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화교육 과정을 지속 개설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 사장은 꾸준히 '고객 만족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부서장 회의에서 그는 아마존이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으로 전통적인 소매 강자였던 이서르를 무너뜨린 예를 설명하며 "고객들은 금융회사도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가져다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디지털의 발달은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는 데 전례 없이 강력한 도구가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